

대시대 3기

강의일	2026년 5월 19일 (화) 오후7시	교수	설준원
제목	"물체가 건네는 말, 시로 받아적다"		
도입	① 물체와 마주하기: 눈앞의 물체를 기자의 시선(단순 팩트)이 아닌, 나만의 감성으로 오롯이 바라보기 ② 3가지 느낌 받아적기: 물체가 가진 외형, 쓰임새, 혹은 연상되는 추억에서 3가지 감상 추출하기		
제시	느낌 1 (시각/촉각): 이 물체를 가만히 바라보거나 만졌을 때 드는 첫 감정은 무엇인가? 느낌 2 (쓰임/기능): 이 물체가 묵묵히 해내고 있는 일(역할)은 무엇인가? 느낌 3 (철학/추억): 이 물체를 보며 떠오르는 내 인생의 한 장면이나 생각은 무엇인가?		
연습	(돋보기안경) 느낌 1: 지문이 묻어 흐릿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. 느낌 2: 흐려진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이어주려 애쓰고 있다. 느낌 3: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과 더 깊게 눈을 맞춰야 한다는 뜻 같다.		
포인트	*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: 내가 평소 느끼는 사소한 사물에 대한 애정이 곧 시의 시작이자 문인의 철학입니다. * 창조자로서의 나: 남들이 정해놓은 정답(물체의 이름)을 거부하고, 내가 느낀 3가지 감정으로 물체를 새로 정의할 때 글을 쓰는 '나의 자존감'은 신의 존재만큼 높아집니다. * 잠수함 속의 토끼: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물체의 숨은 슬픔이나 기쁨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글로 외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인 시민기자 3기생 여러분입니다.		
차시예고	"시의 호흡과 리듬 - 말의 소리를 시로 만들기"		